

# 전남 5000만 관광시대 1년만에 '비상'

### 상반기 '전국 관광도시 1위' 여수 98만명·순천 30만명 급감 날씨·올림픽·월드컵·지방선거·불경기 등 '악재' 수두룩



여수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속에 경관조명을 밝힌 거북선대교위로 해상케이블카가 지나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연 전남이 올해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 1위에 올랐던 여수시를 비롯해 전남 '빅 3' 관광 시·군의 관광객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남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50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용인시를 제치고 전국 1위 관광도시로 등극한 여수시가 올해 상반기 관광객수가 크게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잠정 집계한 상반기(1월~6월) 관광객수는 61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명이 줄었다.

올해 초 한파와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여수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여수시는 올해 관광객 목표를 지난해보다 200만명 줄여

든 1300만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90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순천시 역시 올 상반기 379만 9317명이 방문, 지난해 같은 기간 410만4164명보다 30만4847명(7.4%)이 줄었다.

순천시 역시 올해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여파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상당기간 폐쇄되고 동계올림픽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7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담양군도 대표축제인 5월 대나무축제가 지난해에 비해 2만명이 줄어드는 등 상반기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 관광객수를 집계하다보니 불계가 없지만, 대나무축제 감소 등을 볼 때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면서 "황사 등 날씨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 '빅3' 관광 시·군

관광객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지자체 역시 비슷한 추세가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 5000만명 관광객 시대가 1년 만에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7월말 8월초 여름휴가 최대 성수기가 전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 유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관광객 유체에 불리한 조건이다.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울수록 수도권 관광객들은 주변의 '당일치기' 관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수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연휴 등 황금연휴가 많아 특수를 누렸지만 올해는 날씨, 올림픽, 월드컵,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관광객 목표도 200만명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 동안 5079만 명의 관광객이 전남 주요 관광지를 다녀가 관광객 5000만 시대 목표 달성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위원 공개 모집

광주 동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복지공동체는 복지자원을 발굴해 지원하고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사회적 가족' 역할을 수행하며 동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다.

마을활동가 중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거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보장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봉사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각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서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서

광주 서구가 지난 24 교수, 변호사, 기업 등 전문분야 위원들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된 불합리한 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20건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실현가능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성 등 주민 생활 속 불편의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혼인신고 시 당사자들 외 증인 2인의 서명을 조건으로 하는 증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혼인신고서 증인단 삭제'가 선정되었다.

## 남구, 마을버스 713번 운행 시작

광주 남구는 30일부터 봉선동 일원과 금남로, 양동시장을 오가는 마을버스 713번을 30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713번 버스는 남구 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봉선동 일원과 남광주역, 조선대 정문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공원, 양동시영역을 오가게 된다.

첫 차는 오전 6시에 출발하며 배차 간격은 20분이다. 종점인 양동시영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버스는 오후 10시 10분이다. 총 운행 구간은 8.1km다. 마을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 시간은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북구, 내일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광주시 북구는 오는 28일 용전마을 일원에서 주민·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0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유두정 한미당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전들노래는 용전동 일대에서 불려지던 흥겨운 들노래(노동요)로 1980년대 말 까지 구전돼 오다 맥이 끊겼지만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 재현된 광주 북구의 대표 농요(農謠)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판 만들기·모찌기·모심기·논매는 소리 등의 용전들노래가 재현된다. 소고놀이·진도북춤·판소리 등 국악공연 마당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재현 19년 째를 맞는 용전들노래는 북구와 용전들노래보존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7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고시됐다.

## 광산구, 8개 사회복지시설 무더위 쉼터 개방

광주 광산구는 더불어라노인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시설들을 폭염에 지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로 개방된 복지시설은 더불어라·행복나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첨단·송광·하남 종합사회복지관, 광산·어등 지역지활센터이다.

광산구는 해당 장소에 생수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온열질환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담긴 안내문을 비치했다.

임행택 기자

## 도의회 김기태 의원, 청소년 범죄 예방 소년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본회의 통과·청와대·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

김기태 도의원(순천1·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 수위는 더욱 참혹하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내실 있는 범죄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확충과 경찰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제 인력에 대한 보충 등 청소년 범죄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등부회재본부장

## 광주시-한전, 경로당 냉방기 지원 업무협약

### 노후 냉방기 교체·신규 설치 구입비 50%씩 지원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관내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와 한전은 28일 경로당 냉방기 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폐고장난 경로당 냉방기 교체와 신규·추가 설치 등에 따른 구입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폭염에도 불구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 이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관내 경로당 냉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냉방기 교체가 필요한 100여 곳에 대해 한전과 실무 협의를 마치고 6월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현재 50여 곳의 냉방기를 교체했으며 나머지 50여 곳도 7월 중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관내 경로당 1300여곳에 대한 냉방비 2억6000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5만원이었던 냉방비 지원



금이 두 배로 늘어 7월부터 두 달간 경로당별 월 10만원씩 냉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한전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용 한전 전력수급처장은 "한전은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용센터 30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